

김현미 장관, ICAO 이사국 7연임 선거활동 ‘총력’

- ICAO 교육협력 MOU 서명 및 ICAO의 제주남단 항공회랑 협조 당부 -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.24일(화)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* 제40차 총회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이사국 7연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교섭활동을 전개하였다.

* ICAO: 국제 민간항공 발전을 위한 UN 산하기구로 현재 193개국이 활동 중 ('52년 한국 가입)이며, 매3년마다 개최하는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이사국 선임

- ICAO 이사국은 3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, 항공관련 국제표준 및 주요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민간항공 분야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며,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사국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.

- 김현미 장관은 ICAO 의장(Dr. Aliu)과 사무총장(Dr. Fang Liu)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이사국 연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.

- 아울러,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 중인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, ICAO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.

- 한국은 세계 7대 항공운송 강국으로서 ICAO의 핵심 이니셔티브*에 기여하기 위하여,

-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확대하고, 내년부터 신규로 항공 정책담당자에 대한 석사과정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, 이를 위한 2건의 MOU**를 체결하였다.

* No Country Left Behind 이니셔티브: 회원국의 ICAO 국제표준권고안 이행을 지원하여 안전한 항공운송의 혜택을 모든 회원국이 누리도록 하는 캠페인

** 한-ICAO 간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MOU

한-LACAC(중남미 민간항공위) 간 장학사업(항공분야 석사과정 지원) 협력 MOU

- 김 장관은 이틀 동안 네덜란드, 멕시코, 에티오피아, 스웨덴 교통장관 및 미국 교통보안청(TSA) 청장, 유럽 및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 대표 등과의 10여개의 토크쇼 면담을 갖고, 5차례의 만찬 리셉션* 등에 참석하여, 우리나라의 국제 항공사회에 대한 기여와 역할을 강조하고, 이사국 7연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 나갔다.

* △ICAO 75주년 기념 ICAO 주최, △몬트리올 그룹(한국 포함 아태지역 7개 이사국 간 그룹) 주최, △미국 주최, △이태리 주최, △ABIS 그룹(오스트리아, 벨기에 등 유럽 8개국 간 그룹) 주최 리셉션

- 이사국 선거는 10.1일(화)에 개최되며,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국내 주요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귀국하는 김 장관을 대신하여 27일(금)부터 선거일까지는 김경욱 차관이 교체대표로 참석하여 교섭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.

2019. 9. 26.

국토교통부 대변인